

## 대한법학교수회,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직 사퇴

사법시험 존폐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만들어진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사퇴했다. 이들은 그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온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들이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지난 9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과 김동훈 부회장은 자문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문위를 구실로 사시존치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9일에서 열흘이 남은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후 사시 존치와 관련한 찬반 여론이 격화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법사위 내에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사시존치 문제를 19대 임기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첫 회의는 지난달 22일 열렸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사시 존폐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언제쯤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수회는 “이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가 조속히 사시존치 법안을 심의해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국민들은 교육부의 발표를 듣고 ‘로스쿨 입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사시 폐지를 반대하고 로스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